

安東金氏大宗會報

新年辭

會長 政治學博士 明會



親愛하고, 尊敬하옵는 全國의 宗親 여러분!!

宗末明會가 本報를 通해서 新年의 人事발령을 올린 지가 어제 일 같지만, 이제 또 다 시 紙面을 割愛해서 新年辭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 感懷 더욱 새로워집니다.

이제 多事多端하든 乙丑年은 탈없이 지나가고, 丙寅年의 和暢한 새해가 우리 宗門의 家庭마다 빠짐없이 비치고 있을 것을 믿으며, 祖上 崇高하신 餘慶을 고루 받으시어 萬福이 充滿하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우리 지난 한 年間을 回顧해볼 때, 우리 大宗會는 世被에 물들지 않고, 不況에 휘말리지 않고, 固守한 姿勢로 發展을 거듭해 왔으니, 이는 오로지 列先祖의 英靈이 保佑하심을 입고, 全國에 散在하신 우리 宗親의 마음과 無形의 相通하는 精誠의 結實이라 믿을 때, 우리들은 다시 한번 마음 든든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해 四月, 定期總會席에서 當年度 事業計劃을 樹立하고, 이에 隨伴되는 豫算을 盛大히 奉行하고, 모두가 敬虔한 마음으로, 先祖 夫人의 歲享과 함께 改訂告由를 奉行하였읍니다.

이렇게 巨大한 事業을 完遂하기 위해서 大宗會 常任副會長 崙會 宗親께서는 酷暑炎天에도 不拘하고 檜谷洞 現場까지 七八次를 往來하면서 周到綿密한 指導를 하였으며, 郡事公派世舖 宗親은 透徹한 崇祖精神으로, 그 技巧을 遺憾없이 發揮하여 손수 工事를 完遂한 功勞가 至大하였고, 安東市 宗親會에서는 翼元公派 光得宗人의 直接的인 助力를 爲始해서 全任員이 도와 주었고, 檜谷洞 宗親들의 積極의 協力, 그리고 全國 坊坊谷谷에서 精神的으로 聲援해 주신 宗親들에게 滿腔의 謝意를 表합니다.

지난 十一月二十일에 翼元公派 宗會에서는 楊平郡 木旺里 所在, 翼元公 墓庭에서 二百餘名의 後孫들이 歲享을 奉行하고, 이어서 密直司使公의 密直司使公(諱 陸)은 翼元公(諱 士衡)의 第二子로서 密直司使 兼 都評議司使를 歷任하고, 議政府 左贊成에 追贈

了었으며 伯兄인 同樞公(諱 陸)은 后嗣가 없고, 公이 四子를 두었으니, 即, 領護軍公 宗濤, 部令公 宗漢, 典籤公 宗潤, 同樞公 宗淑이니 密直司使公은 翼元公派 全休의 祖上이 되신다.

密直司使公壇所移安

密直司使公碑文

楊平郡 楊西面 木旺里

許蘭雪軒詩碑除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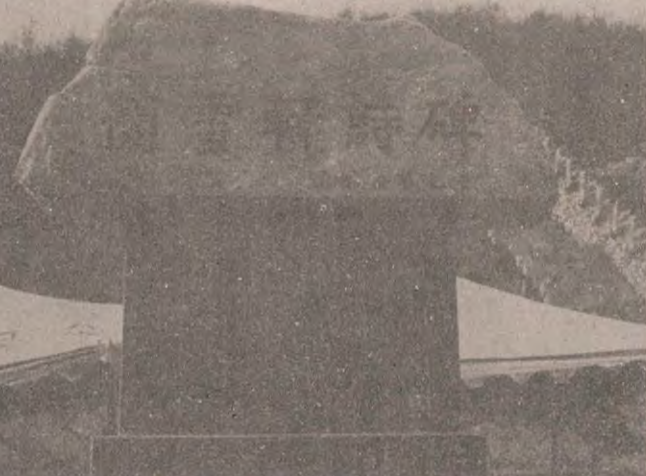
全國詩歌碑 建立同好人會에서

許蘭雪軒詩碑

全國詩歌碑建立 同好人會에서 詩는 지난 85年 11月 24日, 廣州 草月面 池月里 鏡水山 麓에, 李朝에, 女流詩人 許蘭雪軒의 詩碑를 建立하였다. 蘭雪軒은 陽川人으로서 副提學을 지낸, 草堂 許瞻의

따님이며, 洪吉童傳의 著者 許均의 妹氏이다. 妙年에 安東金氏 誠立에게 出嫁하였으니 書雲觀正公의 八代孫으로 弱冠에 文科에 及第하여 弘文館 著作을 지내고, 曹參判에 追贈되었다.

蘭雪軒께서는 七歲에 이미 詩歌와 文章에 能하였고, 書畫 또한 많은 傑作을 남겼으나, 二十七歲에 生涯를 마치 고 말았다.



蘭雪軒의 墓所는, 廣州郡 草月面 池月里 鏡水山 麓에 있 으나, 今番 中央 高速公路 開通 工事로 말미암아 墓域이 侵害 되어 當局에 大대의 陳情도 하였으나 國家의 萬年 動脈을 이루는 政府計劃에는 할 수 없이 移葬을 하였고, 全國詩歌碑 建立 同好人會에서는 華麗한 詩碑를 建立하였다.

이어서, 書雲觀正 派에서는 宗孫 寬浩氏를 爲始해서, 會長 學永氏 등이 主動이 되어, “史蹟地로 指定할 것”을 申請 하였으나 아직은 京畿道廳에 留保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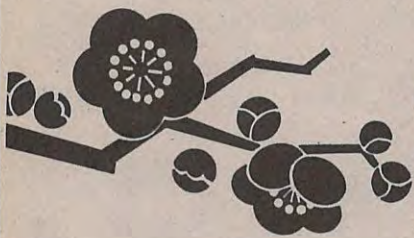


公의 墓所는 長湍府 板門里 라는 文獻의 記錄만 있을 뿐, 歲久年深하고, 政變과 兵亂 등으로 失傳된지 이미 오래되어 後孫으로 하여금 罔極함을 禁치 못하다가, 지난 一九三〇年(庚午)에 楊州郡 八夜味에 設壇行祀해 왔으나, 諸般事情이 永久奉安에 不適하다” 는 派宗論에 依하여, 今番에 先君 翼元公의 墓所 階下에 遷壇移安하였다.

密直司使公 碑文 楊平郡 楊西面 木旺里 密直司使公(諱 陸)은 翼元公(諱 士衡)의 第二子로서 密直司使 兼 都評議司使를 歷任하고, 議政府 左贊成에 追贈了었으며 伯兄인 同樞公(諱 陸)은 后嗣가 없고, 公이 四子를 두었으니, 即, 領護軍公 宗濤, 部令公 宗漢, 典籤公 宗潤, 同樞公 宗淑이니 密直司使公은 翼元公派 全休의 祖上이 되신다.

風濤
(11) 井上靖著
金崙會譯

관청과 문무백관(文武百官)을
위하여 초라한 저택이 밤낮으
로 지어지고 있는 六월 중순
에 작년 초가을에 강도를 출
발하여 일본으로 떠났던 국신
공로가 있었는데, 지금은 반의 멸망을 받든지 바라고 있
는 강도를 버리고 해상(海上) 그들이 매신하여 주었다는 생될 수 있으면 삼별초의 수령
으로 도망친 삼별초(三別抄) 작을 가지고, 그들의 세력이 인배중손(襄仲孫)과 만나서,
자을 가지고, 그들의 세력이 인배중손(襄仲孫)과 만나서,
한 지는 많지 않은, 그러나 그들 고 싶었다. 그러나, 김방경(金
武勳赫赫) 한 지는 많지 않은, 그러나 그들 고 싶었다. 그러나, 김방경(金
방경)의 예상은 들어맞아, 도
가 꼬리를 물고 전해 들어왔
는데, 이 장용은 그때마다 오
동(梧桐) 나무 큰 잎이 소리 없
이 떨어지는 것같은 생각을
생각을



謹賀新年

會長 金會福

代表金馨會

代表 金思默

宗孫金熙允

代表 金成默

會長 金得榮

清原郡
梧倉面
慕亭里

會長 金燦坤

서울 東大門區 昌信洞

傳 說
一
門
四
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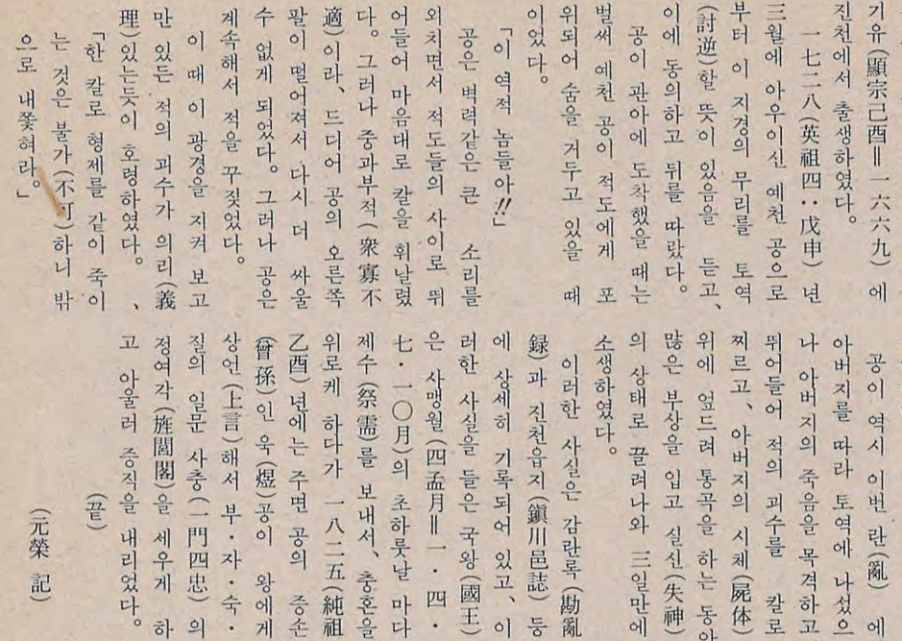
는 변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이를 신임사화(辛壬土禍)라
수 있다면 그 이상 영광스
영광스

理 있는듯이 호령하였다.
「한 칼로 형제를 같이 죽이
는 것은 불가(不可)하니 밖

(元榮記)

으로 내쫓혀라。」

(元榮記)



一〇一〇七

敬順大王陵

始 尋 記

敬順大王的陵所가 中世에 오면서, 오랫동안 失傳되어 왔으니, 이는 비단 敬順大王的陵所만이 아니라, 高句麗나 百濟·新羅는 물론, 高麗에 이르기까지는 大部分의 王陵이 失傳되어서, 오늘날에 이르렀다. 이러한 事實은 當時의 社會形態가 儒敎의 精神은 衰微하고, 오직 崇佛의 思想이 濃厚한 點이 아니라, 佛敎가 國敎의 樣相으로 變하면서 부터, 모든 儀式이 佛敎의 方式으로 行해졌다.

지라도, 찾을 길이 없게 되고 子孫들의 遺恨만 남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敬順大王的陵所도 이와 같은 時代의 潮流에 휘말려, 失傳의 時機가 오래도록 繼續되었다고 생각된다. 언제 부터 이렇게 해서 失傳의 時機가 생겼는지에 대해서는 考察할 길이 없다.

다만 西紀 一七四七年(英祖 33丁卯)에 陵域을 찾을 때까지는 약 八百年間이나 失傳의 狀態로 墳塋이 荒廢되고, 甚至於 野人들의 犯葬으로 말미암아 故意의인 隱蔽行爲까지 겹치니 探索의 難은 漸漸 어렵게 되었다고도 생각된다.

何如間, 敬順大王的陵域을 처음으로 찾은 이는 翼元公의 八代孫인 諱 敏公이다. 公의 五代祖 豐陽君은 中宗反正에 功을 세워 靖國功臣에 策動되어 工曹判書를 歷任하고, 清白吏로 策錄, 豐陽君을 受封하였으니, 그야말로 勢道堂 常한 名門의 後裔였으나, 孝宗朝에 와서, 그때 領議政이며, 西人의 一派인 洛黨의 領袖, 洛興府院君(自號)公이 親淸派란 指目을 받고, 排淸親

利를 利用해서 農事를 營爲함으로서 生計를 維持하고, 經書와 理學을 研磨하는 한편, 訓學과 風月로 山林處士의 멋을 일지않는 餘生을 보내고 있었다.

一七二七年(英祖 3丁未) 敏公은 高浪浦里의 近山기슭에서 採藥을 하다가 偶然히 한 古墳 앞에 얼어붙은 碑石이 있는 碑石을 發見하게 되었다. 이러한 深山幽谷에 큰 碑石이 있다는 것은 異常한 일이라 하느니 疑心하였다. 或是, 沒落된 高麗의 王陵이나 아닌가? 하는 生覺으로 公은 日暮에도 不拘하고 힘을 다해서 碑石을 掘取해 보았더니 이는 分明히 敬順大王的陵誌石이었다.

그러나, 이 高浪浦는 海平에 功을 세워 靖國功臣에 策動되어 工曹判書를 歷任하고, 清白吏로 策錄, 豐陽君을 受封하였으니, 그야말로 勢道堂 常한 名門의 後裔였으나, 孝宗朝에 와서, 그때 領議政이며, 西人의 一派인 洛黨의 領袖, 洛興府院君(自號)公이 親淸派란 指目을 받고, 排淸親



敬順王陵碑

이러한 關係로 庶民은 勿論 이거니와, 王公卿相까지도 死後儀式이 佛式에 依해 行해지고, 陵域이나 墓下에는 寺刹을 建立해서, 應分の 位士로 指定된 僧侶의 生活保障과 守護의 目的으로 提供함으로써 子孫의 義務는 다하게 되고, 仕路에 忠實하는 것이 常例이었다.

그러다가 國家의 變亂이나, 天災地變 등으로 自身의 身上이 危殆로우면, 守護의 責任을 全擔하던 僧侶들이 各自의 生命保全을 위해서 먼 곳으로 隱遁해 버리면, 墳은 절대로 顯落해 버리고 農土는 自然히 荒廢해져서 永永 찾는 사람도 없이 失傳하는 狀態가 되고마는 것이 實例일 것이다. 그래서 아무리 國王의 陵所라 할

明派에 依해서 大逆罪로 몰려 賜死되자, 自身에게도 族黨의 一員으로서 必然의 災로 있을 禍가 두려워, 敏公의 家는 黃海道全川에서 遠地인 高浪浦로 移居하였고, 그 곳에서 隱遁生活를 始作되었다.

이 곳에 率居한 敏公은 農土를 開拓하고, 臨津江의 水

下에서 水源으로 延命하는 그 들은 絶對로 배를 대워주지 않았으니 公의 立場으로서 連絡도 呼訴도 할 길이 없었어 二十年의 歲月이 흘러간 어느날, 公은 밤중에 夜陰을 利用해서 물레배를 훔쳐 타고, 臨津江을 건너서 一路 漢陽으로 떠났다.

漢陽에 到着한 敏公은 要路의 大臣에서 敬順大王的의 内外孫을 두루 尋訪하여 事實을 陳情하고 드디어 上疏文을 올리게 되었다.

『伏以 臣等 先祖 新羅 敬順大王 墓既失復得之後 修治守護 子孫之責也 豈宜上聞 而係是王陵 雖有子孫 不敢擅便事』

〔譯〕 敏公의 先祖인 新羅 敬順大王的의 墓(陵)는 失傳하였다가 다시 찾은지 이미 오래 되었다. 그 後로 修治와 守護는 子孫들의 責務인 것을 어찌 聖上께 이 러한 事實을 아뢰오리오마는 이는 王陵인지라, 비록 子孫이 있다하더라도 敢히 마 음대로 하지 못하는 바이옵 나이다.

이러한 敏公의 上疏文은 直時 上達되고, 이어 批答이 내려는데,

『省疏具悉 今此所陳 可謂稀 有之事 而關係則重 當下詢 大臣 而處之矣』

〔譯〕 疏를 살펴보고 모두 알았노라. 이번엔 陳疏한 바 는 가히 드물게 있는 일이라 하겠으나, 그 相關된 바 가 重大한 일이기 때문에 마땅 히 大臣들에게 問議해서 處理 하겠노라.

그리고 이어서 再次로 다음 과 같은 批答이 내려다.

『省疏具悉 頃有下詢處 之命 則子孫之因此陳章 宜矣 今覽 誌文及 碑文 敬順王 墓 更無致疑 其令 依他前代王 陵例 守護等事 舉行 而近十餘年後 得遇今日 可謂奇矣 況且 東朝 爲祖先 於余爲外先 事體 比他 陵尤重 分付道臣 更爲 着實修 治 堅石時 役軍 亦令本道願助』

〔譯〕 疏를 살펴보고 모두 알았으니 近日에 問議 處理 하겠노라. 公의 命하였는데, 子孫으로 하여금 이러한 일 을 上疏하는 것은 當然한 일이다. 이제 誌文의 寫本과 碑文의 寫本을 보니, 敬順大王的의 墓에 다시 疑心될 바 없으니 다른 前代王陵의 例에 依據해서 修護事業을 施行하도록 하겠노라.

近千年이 지난 後에 오늘 과 같은 일이 있게 되니 가 히 奇異하다. 況且 新羅朝의 祖上이 되시고, 또 나 의 外 祖上이 되시니 事體가 다른 陵에 비해서 더 옥 重大한지라. 監司에게 分付해서, 다시 各該히 修治 하도록 할 것이고, 堅碑를 할 때는 役軍을 本道에서 모아 돌보며 도우도록 하겠노라.

이러한 批答을 내리고 나서 英祖大王은 다시 長湍府使 沈鳳徵에게 分付해서 陵所에서 周圍十里를 陵域으로 定하고 尹氏塚 三百餘基를 三日內에 完全히 移葬하도록 御命을 내 렸다.

一七四七年(英祖 23丁卯)에는 洪濟(忠淸·江原) 監司 金聖運과 金正 金應家 등이 다시 奉築하고 碑石을 改堅 하였고, 英祖大王은 知制敎 李德重에게 命하여 致祭文을 作成해 하고 丁卯正月二十五 日에 李德重이 作成進上한 致祭文으로 長湍府使 沈鳳徵으 로 하여금 致祭케 하였다.

致 祭 文

年月日 謹遣臣 長湍 府使 沈鳳徵

謹致祭于 新羅 敬順王之陵

維羅立國 金檀寶錄 王丁未運 大命將軍 生靈塗炭 封疆日蹙 量時度勢 南面無樂 香車寶馬 擊歸圖籍 幣履千乘 爲麗三恪 興廢有時 人不吝力 惟以安民 王心惻怛 惟德收施 厥報摩感 不億其孫 慶膺沙麓 有廟東川 享祀無斁 大同千載 王靈赫赫

臨滿一坏 王體是式 間經兵燹 人莫能識 理有顯晦 今而乃得 可徵可信 幽誌顯刻 爰命守土 載新封築 有感予衷 坪官靈爵 謹以牲醴 庶 品陳式

〔譯〕 年 月 日에 삼가 長湍府使 沈鳳徵을 보내서 新羅 敬順大王的의 陵에 祭祀를 올리나이다.

오직 新羅 建國 때는, 金檀의 祥瑞였고, 王의 代에 否運當해, 大命將次 바뀌려 고, 民生이 어려웠고, 疆土 날로 줄어들니, 그때 形勢 생각하니, 南面玉座 樂이 없 어, 香車寶馬 줄지어서, 나 라文書 실어내고, 千乘王位 버리고서, 高麗三恪 되었구 나, 興廢가 有時하니, 人力 어찌 당할소나, 百姓들을 원히 하는 王의 마음 慈悲 로워, 德으로 배부시던, 그 報應이 어김없이, 數 많은 子孫에게 慶福이 내리셨네. 東川에 모신 祠堂, 祭享이 끊임없이 千年 길이 大同하 게, 王靈이 밝으셨네, 長湍 江邊 一封陵을 王禮로서 모 셧으니, 中間에 兵火 겪어, 사람들이 몰랐으니, 理致에 明暗있어, 이제야 찾았노다. 證據되고 믿을있게, 문헌 誌石 露出되어, 守令에게 命令하고, 다시 封築 하고 보니, 感想깊은 나의 衷心 獻官보내 잔드리고, 삼가 犧牲醴酒로서 여러 祭羞을 립니다.

〔註〕 三恪 周나라 武王이 虞·夏·殷의 後孫을 諸候로 封했다는 古事

그 後로 長湍府에서는 三月 一日과 十月 一日의 春·秋로 每歲享祀를 올리고, 官軍으로 하여금 永世도록 守護에 缺함이 없게 하였다.

또 敏公의 後孫들은 代代로 高浪浦에 살면서 近洞에 居住 하는 慶州金氏와 같이 그 管 理를 주관하고, 高浪浦 洞民 들이 修治의 役에 就하게 되 었다. (끝)

(元榮記)

開城尹公派	金 鍾 根
郡事公派	金 思 默
坡州郡汶山邑仙遊里	
郡事公派	金 在 殷
坡州郡汶山面仙遊里	
郡事公派	金 在 翊
華城郡長安面錦衣里	
典書公派	會長 金 正 教
華城郡正南面諸岐里	
典書公派	金 玉 元
鎮海市余佐洞三街三統三班	
副使公派	金 又 珍
鎮海市慶和洞一街四六三	
副使公派	金 寧 秀
鎮海市大竹洞一五一五四	

問中

全南康津郡東面錦江里 郡事公派內洞門中編

全南光州에서 市外에서 市內으로 約 二時間의 距離에 位置한 康津郡은 우리나라의 最南端이라 할 수 있다.

南으로 茫茫한 南海의 물결이 卷기차게 捲어내린 韓半島에 이어져 多島海를 形成하여 絶景을 이루고 있는 中에서 完島, 古今島 등 大小의 島嶼를 남기고, 北으로 江의 水를 流하고, 康津灣을 이룬 尖端의 地點에 位置한 康津郡은 水産物의 故庄이기도 하지 만, 肥沃한 農土와 宜한 氣候는 豐盛한 收穫을 거둘 수 있는 農村이기도 하다.

康津邑에서 東으로 約 二十里, 自動車로는 十餘分의 距離에 位置한 양지바른 마을, 四五十戶에 不過한 農村部落이지만 豐饒한 빛이 감돌고, 人情이 넘치는 듯한 마을이다. 內洞마을이며, 行政區域으로 康津郡東面 錦江里이다. 이 마을에 安東金氏가 定着하기는 까마득한 옛날이다. 族譜의 記錄과 같이 上洛君 (諱利請)께서 安東太守로 赴任하신 後로 安東에 살으셨으나, 以後 近十代 동안은, 或은 登科로 或은 蔭仕로 因해서 開京을 中心으로 任地에서 居住하시면서 安東을 桑郷으로 杖履의 자취를 남기셨다.

그러다가, 우리 先祖들이 全國各地로 分散되기는 高麗가 亡하자 高麗의 舊臣으로서 先王朝에 對한 忠節의 丹心이 그 原因이 되었다. 一三九二年 壬申 七月에 李成桂는 兵馬를 動員해서 李朝를 創業하자, 當時 遂安郡事로 계시던 諱 七陽께서는 全羅道 康津당으로 내려와서 全羅道 康津당으로 내려와서 康津生活를 하시면서 오직 爲己之 했으며, 濟用監 參奉을 지낸

學問으로 餘生을 마치시니 그 後孫들이 內洞部落을 形成하고 門戶를 이루어서 至今까지 내려오고 있다. 郡事公께서 諱 康津까지 내려오신 理由는 이곳이 옛 緣故地 때문인 듯하다. 即公의 祖父인 忠肅公(諱承用)께서 韓, 奸臣의 策告로 左遷되셔서, 長興府와 靈光郡 등지의 城主(元)로 多年間에 시면서 人心을 얻으셨고, 이 국事情을 익혀 아시기 때문인 듯하다. 郡事公의 長子인 生員公 (諱 姑)은 無后이시고 次子인 直提學公(諱 壤)의 後孫은 坡州의 汶山地方을 中心으로 京畿道 一圓에 分布되어 있고 康津地方에는 公의 第三子인 諱 敬公의 後孫들이 大部分이다.

敬公은 定宗 丁酉年 式年 試에 文科에 及第하여 官이 左副賓客에서 直提學에 이르렀고, 天文에 精通하여서, 簡儀臺·報漏閣·欽敬閣의 記文을 修撰한 文章의 大家이었다. 直提學公의 子 諱는 季老이니 潭陽府使를 지내셨고, 府使公의 子 諱는 石精이니 進士로서 成宗 癸卯에 文科에 及第해서 吏曹佐郎을 지내셨다.

佐郎公이 三男一女를 두셨는데, 康津의 內洞門中은 佐郎公의 三子인 忠順衛公(諱 廷健)의 後孫들이었다. 忠順衛公의 子 諱 碩亦是 官이 忠順衛이며, 子 諱 興業은 軍器寺 直長으로 一五九七年 丁酉에 倭寇가 再浸하자, 羅道 康津당으로 내려와서 康津生活를 하시면서 오직 爲己之 했으며, 濟用監 參奉을 지낸

아들 諱 瑞鳳公 또한 父親의 戰死를 目見하고, 賊陣에 突入하여 싸우다가 함께 戰死하였는데 그 事實이 三綱錄에 記錄되어 있다. 參奉公이 아들 諱 時範을 두고 弱冠에 早卒하니 이 때 그가 아들로 風前燈火格의 時代였다. 時範公이 長成해서 鏡城의 森坡萬戶를 지내고, 司僕寺正에 追贈되었으며 아들이 鼎禹·錫禹는 贈 左承旨·九命·命禹·重禹 등 五兄弟를 두게 되니, 바로 康津門中의 繁盛은 이 때부터 始作되었고, 그 孫子의 代에는 十八從伴으로 늘어나서 堂堂한 門中으로 康津郡中에서 鄉班의 列에 頭角을 나타내게 되었다. 이제 그 後孫은 二三百戶를 헤아릴 수 있으나, 全南一帶에 散居하는 數자가 많으며, 生活의 터전을 찾아 都市로 進出하고 或은 海外로 나갔는데, 內洞門中에는 不過五十餘戶가 古基를 지키면서 祖上의 世業을 이어받아, 爲先事業을 계승하지 않고 있다.



內洞에서 約 十里許에 位置한 鵲川面 土馬里 南山은, 이 門中에서 五百年 동안 香火를 이어온, 郡事公의 塋山이다. 以上 三代位는 失傳되어서 後孫된 마을에 未安함을 禁치 못하다가, 마침내 一九六七年 (丁未 二月)에는 判書公(諱 愼) 忠肅公(諱 承用)·評理公(諱 厚)의 三代位를 以次로 設壇 奉安하였는데, 이 일로 全北 扶安의 故 鳳默氏의 勞苦도 至大하였지만 內洞門中의 主役이라 아니할 수 없었다. 그러나 設壇만으로 奉先이 되지는 않는다. 榮號氏·敬默氏·思默氏 등의 獻身的 努力과 周到綿密한 計劃으로 位土를 買入하고 齋舍를 建築하였다. 그리고 齋舍까지 들어갈 수 있는 車道도 닦고, 電氣架設도 하였다. 그러나 急進的 發展을 가져온, 交通手段에 힘입어, 每年 陰曆 三月 十六日에 奉行하는 奠享에는 全國各地에서 七八十名의 參祀者가 모이게 되는데, 그 位土와 齋室로서는 不足함이 많아서 門中齋舍에서 宿食을 하게 되는데, 男女老少가 모두 나와서 祭需을 장만하고, 接客의 任務에 當하는 일, 또한 같은 後孫으로서는, 感謝함과 未安한 마음 禁치 못한다. 그런데, 앞으로 해가 거듭될수록 參祭員이 늘어날 것인데, 判書公의 後孫들은 多少의 誠意라도 傾注해서 位土라도 擴張하는 일이 時急하다는 宗論이다. 內洞門中에서 現在의 著名人士로 敬默氏를 들 수 있다. 康津郡校의 典校까지 지낸 바 있는 敬默氏는 修身과 齊家에서 世人的 垂範이 될 뿐 아니라 康津郡內에 널리 알려진 人士이며, 門子姪를 善導하며, 宗事를 計劃적으로 遂行하고, 이를 輔弼하고 모든 宗事를 몸소 實踐하는 思默氏 또한 郡內와 宗門에 널리 알려진 人士이다. 東遠産業을 創設해서 遠洋漁業의 里程表로 손꼽히는 在哲(50)氏는 敬默氏의 長男이다. 在哲氏는 非常한 頭腦를 가진 企業經營人으로서 內外的으로 二百餘億원의 市場規模를 가진 "동원 참치"의 통조림은 市場占有率이 80%에 이른다는 推算이다. 八五年十一月二十四日 週間韓國誌에서는 "한국"의 "엑셀런트 리더" 十五인이라는 題下에 金在哲氏를 "人間尊重"의 意識이 강한 經營者로 손꼽았고, 同誌에서는 "기업은 사람

그늘이라는 그의 信條를 높이 評價하였다. 社長室은 應接室으로만 使用할 뿐, 任員室도 전혀 간막이 없이 恒時對話를 나눌 수 있는 雲團氣를 造成하고 있고, 實務에 參見하지 않고 오직 自身은 새로운 開發에만 力을 쓰고 있는 在哲 社長은 會社創立 후로 한번도 傳票의 決裁를 한 일이 없을 만치 實務陣을 맡고 맡겨 둔다는 보기도 經營者이고, 恒常 새로운 漁場과 새로운 漁法의 開拓에만 餘念없이 되고 있어 아직도 無限의 發展이 있으리라 믿어진다. 이 內洞門中의 宗親들은 모두 農業에 從事한다. 마을 앞에는 깨끗이 整理된 門前沃番이 있고, 天惠의 氣溫은 農事に 알맞아 주로 二毛作을 하는데, 米穀生産이 主業이지만 봄에 耕作하는 經濟性 作物 또한 이 마을을 豐饒롭게 만드는 源泉일 것이다. (元榮記)

고소득 二 부농 二五味子재배

본인은 평범한 농민으로서 수년 전부터 직접五味子を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타작물에 비해서 몇배의 소득이 있음을 확신하고五味子 묘포를 권장하는 바입니다. 2단보에五味子を 재배하면 벼(米作) 한섬작이 수확과 같을 뿐만 아니라 누구나 손쉽게 재배할 수 있으며 대를 물려 수확할 수가 있습니다.

본인은 직접 재배한 묘포가 다소 있어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하여 드리고자 하오니 희망하시는 분은 건실한 현물을 보시고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물량이 많지않아 선착순으로 예약을 받으니 양할 바랍니다.

참고사항

- 재배시기: 10월 하순~11월20일
- 물에는 해동~4월10일
- 재배상담 및 서신문의 환영

충북 괴산군 괴산읍 능촌리 386
五味子농원
金奎哲 ☎ 2-4190

謹賀新年

새해를 맞이하여
萬福을 祈願합니다

金泰永
(按廉使公派)
서울 江東區 馬川洞 272

謹賀新年

새해를 맞이하여
萬福을 祈願합니다

金賢潤
(開城尹公派)
서울 東大門區 新設洞 104-36

三別抄(1)

삼별초(三別抄)는 원래 최충헌(崔忠獻)의 사병(私兵)들이었다.

최충헌은 친한 무신(武臣)의 출신으로, 정중부(鄭仲夫)가 반란을 일으켜서 문신들을 죽이고, 세력을 잡게 되자 이 기회를 틈타서 그의 정적(政敵)인 이의민(李義民)의 부자와 심지어는 그의 아우 최충수(崔忠粹)까지 죽이고 독재의 지위에 앉아서, 국왕(國王)까지도 그의 명령에 추종할 수 밖에 없는 허수아비를 만들어 놓고 있었다.

그러나, 고려가 그 전성기의 종지부(終止符)를 찍고, 제17대 인종(仁宗)의 대에 와서는 역대를 통해서 흐르던 문치주의에 더욱 기울어져서, 문과 무의 차별대우는 더욱 심해져 갔다.

그리하여 마침내는 무신지배의 정치로 바뀌었고, 또 이러한 지배체제에 대한 여러가지 반발운동이 일어나고, 한편으로는 무신 상호간의 상극적 투쟁과 지방에서의 서민(庶民)이나 노예층의 반란 등이 꼬리를 물고 일어났다.

고려가 문신의 시대에서 무신의 집권체제를 일으킨 동기는 정중부(鄭仲夫)의 란에서 비롯되었다.

정중부는 황해도 해주(海州)에서 출생하였는데, 그 힘이 보통사람과 겨룰 수 없을 만치 달랐다.

그의 용모는 매우 사납게 생겼고, 네모진 눈에 이마는 넓고, 탐스러운 수염을 지니

면서도 정신이 아찔하게 들고,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었다. 「네 이름!」 어린 것이 무슨 해괴한 짓이나...?」 분노를 참을 수 없는 정중부는 이러한 고함소리와 함께 그 젊은 문신의 목살을 잡고 옥살을 마구 퍼부었고, 이 서슬에 겁이 난 소년은 달아나 버렸다.

그런데, 사건은 여기에서 그칠 않았다.

이때, 그 소년 문신은 금년에 과거에 급제할 김부식(金富弼)의 아들 김돈중(金敦忠)이었으니, 당시에 김부식의 아들인 나세도 떨어뜨릴 만할 당당한 세도가이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김부식은 즉시 국왕인 인종의 어전(御前)에, 정중부를 불러서 고문할 것을 청하였다.

그러나, 왕은 정중부의 사람됨이 기이함을 알고 있었기에, 사태의 확대를 막기 위해, 소용히 정중부를 불러서, 도망하게 함으로써, 김부식의 고문을 면하게 하였다.

정중부는 이렇게 해서 즉위(即位)한지 얼마 안되어, 그의 심중에 문신의 횡포가 뼈에 사무쳐서, 보복의 결심을 하였으나, 혼자 힘으로는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두고 보자, 이놈들, 언젠가는 내놈들이 내 손아귀에서 죽을 때가 있을 것이다」.

비밀에 비밀 겹쳐있는 정중부의 행동은 더욱 거칠어졌으나, 그래도 궁중의 문신들 중에는 그를 해칠 사람이 없었다.

그해 8월 29일(癸亥), 의종(毅宗)은 연복정(延福亭)에서 놀다가, 다시 흥왕사(興王寺)로 자리를 옮길 때, 그저 끝러만 다니던 정중부는, 이 고와 이의방에게 먼저 시위를 하였다.

「이제 우리도 다 참을 수 없다. 지금이 거사하기에는 가장 적절한 시기지만, 만약에 상감께서 곧 환궁하시

게 되면, 오들은 그만 두되, 상감께서 다시 장단(長端)의 보현원(普賢院)으로 가시게 된다면, 왕궁과의 거리가 멀어,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정중부를 중심으로 한 무신들의 음모가 무트어 가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의종이나 문신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다만 태평성세처럼 호화로운 놀이에만 급급하고 있었다.

그런데, 정중부 일당의 계획을 성공시킬 수 있는 기회는 바로 그 이른날인 8월 31일에 다가왔다. 보현원의 놀이 때를 잔뜩 노리고 있는 무신들의 무서운 계획의 의중이나, 문신들은 전혀 알바 없었다.

의종은 많은 문신들과 호위무장(護衛武將)들을 거느리고, 보현원을 향해 5문 밖에 이르렀고, 이곳에서 또 한차례의 술자리를 벌였다. 문신들에게 차례대로 술잔을 순배하고 보니, 문신들 보기에 「너무나 앉았다」고 느낀 의종이 다른 생각으로 제신들에게 명령하였다.

「이 곳은 정말로 경치가 장관이로다. 가히 무예로서 승부를 겨루어 볼만 하구나!」

이제부터 오병수박회(五兵手搏會)로서 무예를 겨루어 보라」.

의종이 시킨 이 오병수박회라는 놀이는 5명이 한조(一組)가 되어 손으로 상대방을 쳐서 승부를 겨루는 무예의 일종이었다. 의종의 생각에는 무신들이 반드시 이길 것이고 그 상으로 무신에게도 술과 음식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경기의 결과와는 예상치 못하게 반대로 돌아갔다. 그 이유로는 연로(年老)한 무장(武將)이 소용(李紹膺)은 이미 노쇠하여 젊은 이와는 상대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

런데 공교롭게도 그는 한 회(韓賴)라는 젊은 문신과 맞붙게 되었으니, 아무리 무예에 능하다 할지라도 손발이 제대로 말을 들을 수 없어 패하고 달아나 버렸다. 이를 본 한

평생을 무부(武夫)로서 지낸 장군이 어찌 이토록 비겁하냐?」

라고 외치면서, 달아나는 이 소용을 붙들어서 뺨을 후려갈기니, 술이 겨나해진 왕이나, 연소한 문신인 임종식(林宗植)·이복가(李復基) 등은 별생각도 없이 박장대소(搏掌大笑)로 비웃는 야유를 퍼부었다.

그 당시로서는 무신이 문신으로부터 천대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시대이지만, 수백명의 부하 장졸 앞에서, 그것도 젊고 젊은 문신에게 뺨까지 맞았으니, 이 모욕적 행위를 목격한 여러 무장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하고, 특히 정중부의 눈에는 분노의 불꽃이 이글거렸다.

「이 소용(李紹膺) 장군은, 비록 무부(武夫)기는 하지만, 그의 벼슬이 3품인데, 어찌 나이 어린 자가 뺨까지 치는가?」

사각(四角)으로 뻗은 눈을 치켜뜨면서 소리치는 정중부의 말에 이어 성미급한 이고(李高)가 칼을 뽑았다. 그러나 정중부는 「아직 때가 아니라」는 눈치를 보이고, 이고를 물러 세웠다.

정중부는 「혁명(革命)」이라는 거사(舉事)를 기도(企圖)할 만치 그 도량과 생각도 넓었다. 아직 이곳에서는 서울과의 거리가 너무나 가까워서 거사를 함부로 감행했다가는 곧바로 성공으로 연락이 될 것이고, 대역죄(大逆罪)로 몰릴 것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한 일인 것을 정중부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광경을 본, 의종(毅宗)은 자리를 옮기라고 명령하고 행차를 보현원(普賢院)으로 향하였다.

(다음 호에 계속)

贊助人名單

- | | | |
|-------|--------------|----------|
| 金五萬圓 | 翼元公派 | 明會(會長) |
| 金五萬圓 | 開城尹公派 | 宗親會 |
| 金五萬圓 | 開城尹公派 | 賢潤(新設洞) |
| 金五萬圓 | 大邱市宗親會 | |
| 金五萬圓 | 永川郡宗親會 | |
| 金五萬圓 | 都評公派 | 大門中(義城) |
| 金五萬圓 | 按廉使公派 | 泰永(馬川洞) |
| 金五萬圓 | 榮豐郡·榮州市宗親會 | |
| 金五萬圓 | 江陵市宗親會 | (翼元公派) |
| 金五萬圓 | 開城尹公派 | 鍾根 |
| 金五萬圓 | 郡事公派 | 思默(坡州) |
| 金五萬圓 | 郡事公派 | 在殷(坡州) |
| 金五萬圓 | 大護軍公派 | 成默(咸平) |
| 金五萬圓 | 提學公派 | 宗親會 |
| 金五萬圓 | 清州市宗親會 | |
| 金五萬圓 | 按廉使公派 | 大宗會 |
| 金五萬圓 | 翼元公派 | 宗會 |
| 金五萬圓 | 忠南錦山郡宗親會 | (翼元公派) |
| 金五萬圓 | 翼元公派 | 宗親會 |
| 金五萬圓 | 郡事公派 | 康津宗親會 |
| 金五萬圓 | 郡事公派 | 廣濟宗親會 |
| 金五萬圓 | 郡事公派 | 在翊華城 |
| 金五萬圓 | 典書公派 | 正教華城 |
| 金五萬圓 | 典書公派 | 鍾祿華城 |
| 金五萬圓 | 副使公派 | 玉元鎮海 |
| 金五萬圓 | 副使公派 | 又珍鎮海 |
| 金五萬圓 | 副使公派 | 寧秀鎮海 |
| 金五萬圓 | 副使公派 | 相會槐山 |
| 金五萬圓 | 按廉使公派 | 在橫漢江路 |
| 金五萬圓 | 典書公派 | 在琪達城 |
| 金五萬圓 | 提學公派 | 在文達城 |
| 金五萬圓 | 翼元公派 | 奉會寧越 |
| 金五萬圓 | 翼元公派 | 在橫龜尾市 |
| 金五萬圓 | 翼元公派 | 榮德(大邱) |
| 金五萬圓 | 翼元公派 | 在允安東 |
| 金五萬圓 | 都評議公派 | 壽封義城 |
| 金五萬圓 | 都評議公派 | 浩充(大德) |
| 金五萬圓 | 都評議公派 | 浩珍(大德) |
| 金五萬圓 | 都評議公派 | 江華宗親會 |
| 金五萬圓 | 祭席(江華花紋席) | 一枚 江華宗親會 |
| 金五萬圓 | (以上 遺墟碑閣竣工時) | |
| 金參萬圓 | 按廉使公派 | 在鎮(上道洞) |
| 金貳萬圓 | 提學公派 | 相學(釜山) |
| 金貳萬圓 | 提學公派 | 奎哲槐山 |
| 金壹萬圓 | 按廉使公派 | 德振(上道洞) |
| 金壹萬圓 | 按廉使公派 | 尚會(青雲洞) |
| 金壹萬圓 | 翼元公派 | 重默(石串洞) |
| 金壹萬圓 | 翼元公派 | 鋪滿(安岩洞) |
| 86 萬圓 | 都評議公派 | 鳳凰(乙支路) |
| 86 萬圓 | 都評議公派 | 對(贊助) |